

退溪先生 年譜要略*

- 1501년(연산군 7년) 11월 25일 禮安縣 溫溪里(현재의 安東郡 陶山面 溫惠洞)에서 진사 李埴의 7남 1여 가운데 末子로 태어나다. 모친 박씨가 공자의 來臨하는 태몽을 꾸고 잉태했다 하여, 지금도 陶山面 온혜동 老松亭 생가에는 <聖臨門>과 胎室이 보존되어 있다.
- 1502년 (2세) 생후 7개월 만에 부친 贊成公 別世
- 1506년 편모 슬하에서 농사와 길삼을 도와가면서 6세때부터 이웃 노인에게서 천자문을 비롯하여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등을 배운다.
- 1512년 12세때인 이 해부터 숙부인 松齋公 李堦에게 논어를 배움. 이 무렵 이마가 유난히 넓다 하여 <廣額兒>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다.
- 1515년 15세에 이미 시문에 능하여 게(蟹)를 보고 <負石穿沙自有家> 등의 시를 지었다.
- 1518년 18세에 <露草夭夭繞水涯>와 19세에 <獨愛林廬萬卷書> 등의 大詩人을 방불케 하는 철학적인 시를 지었음.
- 1520년 주역을 탐독, 침식을 잊어버리다시피 했음.
- 1521년(正德 16년) 김해허씨와 결혼하다.
- 1523년 6월에 장자 篤 출생. 이 해에 처음으로 상경하여 태학(성균관)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다.
- 1527년 경상도 鄉試에 참가하여 2위로 합격, 10월에 차자 瓘 출생. 동년 부인 허씨를 喪配하다.
- 1528년 進士會試에 2등으로 합격하다.
- 1530년 己卯名賢 權礪의 질녀인 안동권씨와 재혼하다.

* 李熙大 要約, 『退溪門人錄』(太陽社, 1983)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 1533년 이해 泮宮에 유학하다.
- 1534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權知副正字와 예문관 檢閱이 되고, 춘추관 記事官, 經筵侍讀官 등의 要職을 겸임함.
- 1536년 宣務郎과 성균관 典籍을 거쳐 9월에 호조좌랑에 임명되다.
- 1537년 宣敎郎, 承訓郎, 承議郎이 되었으나 10월에 모친 박씨 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나다.
- 1539년 母夫人의 3년상을 마친 후 홍문관 副修撰을 거쳐 修撰 知製敎로 승진되고 經筵檢討官을 겸함.
- 1540년 司諫院 正言에 올라 奉訓郎, 奉直郎이 되고 承文院 校檢, 經筵 侍讀官, 춘추관 記註官을 겸하였다가 校理로 승진됨.
- 1541년 사헌부 持平과 홍문관 修撰, 성균관 典籍, 형조정랑 등을 역임하다.
- 1542년 의정부 檢詳을 거쳐 어사로 임명되어 충청도와 강원도를 순찰하고 상경하여 의정부 舍人으로 승진되었다가 12월에 司憲府 掌令이 되다.
- 1543년 신병을 이유로 관직을 사임. 그후 宗親府 典籤, 朝奉大夫, 世子侍講院 弼善, 朝散大夫, 사간원 司諫, 성균관 司成 등에 차례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귀향하다. 11월에 다시 禮賓寺 副正으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음.
- 1544년 홍문관 校理와 應敎, 사헌부 掌令, 경연 侍講官, 춘추관 編修官 등으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음. 10월에 상경한 후 中宗이 승하하자 명나라에 보내는 부고와 謚狀을 집필하여 명나라 禮部 官員을 크게 감탄하게 했다.
- 1545년 45세 때인 이 해에도 奉正大夫, 軍資監 僉正, 홍문관 應敎와 典翰, 禮賓寺正 등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더러는 부임하지 않았으나 11월에 通訓大夫가 되고 迎接都監郎廳에 다시 임명되었다. 이 해 7월에 仁宗이 승하하고 明宗이 즉위하자 왜인들이 강화하고자 비는 것을 허락하자는 疏를 올림

- 1546년 이 해에도 교서관 校理와 承文院 校理, 禮賓寺 正 등의 관직이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귀향하여 養眞庵이라는 초당을 짓고 학문 연구에 정진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다. 이해 7월에 부인 權氏를 喪配하다.
- 1547년 7월에 安東府使로 제수되었으나 사임, 다시 홍문관 應敎로 제수되어 마지못해 일단 상경하여 사퇴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 1548년 외직을 자청하여 단양군수로 취임. 많은 치적을 남기고 10월에 풍기군수로 전임. <丹陽八景>은 퇴계가 군수로 재임시인 이 때에 선정한 것임.
- 1549년 管内 白雲洞에 있는 서원의 기틀을 세우고자 상감께 上疏하여 편역과 서적을 청했던 바 모두 允許되어 紹修書院이라 개칭하여 서원의 矯矢를 이루게하다. 9월에 身病으로 사퇴하고 귀향.
- 1550년 禮安 霞明洞에 寒棲庵을 이룩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제자들을 가르침. 京鄕 각지에서 많은 제자들이 학문을 배우고자 모여오다.
- 1552년 4월에 홍문관 校理, 知製敎로 임명되고, 경연 侍讀官, 승문원 교리 등에 부름을 받고, 7월에는 通政大夫 성균관 大司成에 제수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임하다.
- 1553년 4월에 다시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었으나, 또 사퇴하고 鄭芝雲의 <天命圖>를 개정하는 등 학문에 전념하다.
- 1554년 東宮과 思政殿의 上樑文을 짓고, 사정전에 大寶箴을 써서 올린다. 이 해에도 刑曹參議, 병조참의, 僉知 中樞府事 등의 관직이 제수되다.
- 1555년 수많은 관직을 제수받을 때마다 신병으로 사퇴했으나 윤희가 내리지 않아 마침내 上京하여 謝恩하고 향리로 돌아오다. 이때 上護軍과 僉知中樞府事를 제수하다.
- 1556년 5월에 홍문관 副提學과 知製敎에 제수되었으나 사퇴하고

- 도산에서 <朱子書節要>를 編次 완성함. 12월에 향약을 抄하다.
- 1557년 도산서당을 지을 터를 마련하고 <啓蒙傳疑>를 저술하다.
 - 1558년 7월에 성균관 大司成에 임명되고 어필로 嘉善大夫 工曹參判에 제수되어 3차에 걸쳐 固辭했으나 윤허가 내리지 않아 일단 상경, 부임하다.
 - 1559년 휴가를 얻어 귀향한 후 관직을 사임하는 서장을 올리고 <宋季元明理學通錄>을 저술하다.
 - 1560년 이 해에 高峯 奇大升에게 답하는 편지 형식으로 철학적 大命題인 四端七情論을 저술함. 이 해에 陶山書堂이 완성되다.
 - 1561년 3월에 節友社를 짓고 각처에서 모여든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山水間을 周遊하면서 <陶山記>같은 명문을 남기다.
 - 1564년 이 해에도 도산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훈화하는 한편 9월에는 靜菴 조광조선생의 행장을 지었다.
 - 1565년 제자들에게 <易學啓蒙>을 강론하고 <景賢錄>을 개정한 이 해에는 同知中樞府事職을 사임하는 글을 올려 허락을 받고 白鹿洞 規圖와 名堂實語를 써서 玩樂齋에 걸었다.
 - 1566년 공조판서와 홍문관 大提學, 예문관 大提學 知成均館事 등 여러 관직을 제수하며 왕으로부터 특별 소명이 내려 부득이 상경하다가 중도에서 得病. 다시 사퇴하고 귀향하니, 왕은 실망과 한탄을 마지않으며, 儒臣들과 畫工들을 陶山으로 내려 보내 <陶山記>와 도산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오게 하여 왕은 그것으로 병풍을 만들어 애용하였다. 이 해에 李晦齋선생의 행장을 짓고 心經後論을 지음.
 - 1567년 임금의 教旨를 받고 상경한 후 명종이 승하하자 大行王의 행장을 짓다. 7월에 禮曹判書에 제수되었으나 재차 사퇴, 그밖에도 知經筵 春秋館事 知中樞府事 등 수많은 特旨召命과 관직 제수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사임을 간청하고 귀향하다.
 - 1568년(선조 원년) 의정부 右贊成과 判中樞府事에 제수되자 6월에 召命을 어기지 못해 상경하여, 兩館 大提學에 겸임되다. 재임 중에

저 유명한 <戊辰六條疏>를 지어 왕에게 올림. 12월에 <聖學十圖>라는 帝王學을 열 장의 그림으로 그려 올리며 왕은 嘉納하여 병풍을 만들어 大內에서 애용하다.

- 1569년 정월에 이조판서에 제수되고 뒤이어 의정부 右贊成에 제수되었으나 신병으로 취임하지 않고 귀향하다.
- 1570년(70세) 이 해에도 제자들에게 心經과 易經啓蒙을 강의하고 奇明彦에게 心性情圖를 논하고 11월에는 格物致知說을 개정하다가 身病이 심상치 않음을 豫知하고 12월에는 奉化縣監으로 재직 중인 장자 雋을 사직하고 귀가케 하여 장사 준비를 갖추게 하여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는 銘文과 自銘까지 몸소 써 놓고 이달 8일 酉時에 寒棲庵에서 앉아 있는 대로 고요히 세상을 떠나다. 임종하기 직전에 侍生에게 梅花盆에 물을 주라는 분부를 내리다.
부고가 조정에 전해지자 영의정으로 증직되다.(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를 추증하다.)
- 1571년 3월에 예안 擘芝山 남쪽에 장사지내다.
- 1572년(萬曆 원년) 11월 초하루에 위패를 伊山書院에 봉안하고 釋菜禮를 거행하다.
- 1573년(甲戌) 봄에 사림의 공론으로 서원을 도산 남쪽에 세우기로 하다.
- 1574년(乙亥) 여름에 옛 陶山書堂터에 서원이 낙성되니 <陶山書院> 현판이 하사되다.
- 1575년(丙子) 2월 丁丑日에 위패를 도산서원에 봉안하고 釋菜禮를 올리다.
같은날 廬江書院에서도 위패를 받들어 모시고 제사지내다.
- 1575년(丙子) 12월에는 文純이라는 시호가 내려지다.
- 1595년(丙申) 潤 8월 戊寅日에 墓所에 誌石을 묻었다.